

자동차와 사람들로 넘치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자 한낮에도 강가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로  
반쯤 잠긴 수려한 산들과 청명한 하늘을 품은 양평을 만났다. 양평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  
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낙원이다.



# 자연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의 맑은 물을 위하여 · 양평군 수도사업소

## 자연 속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양평

경기도 양평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이 나오고, 서쪽으로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광주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여주군, 동쪽에는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가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 정중앙에 점 하나를 찍으면 그곳이 바로 양평군이라고 할 만큼 한반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서울시의 1.5배에 이르는 877.78km<sup>2</sup>,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도 바로 올려다 보이는 용문산을 비롯해 명산 여럿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또 남부에서 북서로 흐르는 남한강은 북부에서 남양주시와의 경계를 따라 남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양수리에서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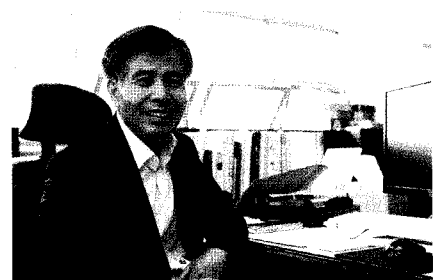
이러한 지리·환경적 여건은 지금까지 양평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8년 9만1천 명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질의 쾌적한 삶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평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듯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된 곳도 드물 겁니다.”

산과 강, 공기와 물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맑고 청명한 곳이 양평이라고 소개하는 김규호 소장은 그래서 양평의 물맛이 가장 으뜸이라고 자랑한다.

“평소 더 맑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김선교 군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물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호 양평군 수도사업소 소장





### 양평통합상수도 사업으로 보다 맑은 물 공급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경영 분석,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수도행정',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배수관로 관리, 노후관로 교체, 수도계량기 관리를 맡고 있는 '수도시설', 그리고 지방 상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상수도 수질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운영' 등 3개 분야에서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양평군은 12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어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로, 가압장, 배수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40.3%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저조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인구에 비해 양평이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에 비해 보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주사는 양평과 용문, 지평, 옥천의 취·정수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시설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이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05년 12월 착공한 1단계 사업은 지난 7월 모두 완료되었고, 2009년 7월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2025년까지 총 4단계로 구분 시행될 이번 사업으로 양평군은 앞으로 통합상수도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평과 용문, 옥천 등 3개 취·정수장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통합 운영에 따라 수돗물의 생산 원가는 절감되고, 군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질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양평군 수도사업소를 상수도 보급률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양평통합상수도, 양서상수도, 양동상수도 3개소 및 소규모 수도시설 172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환경부 주관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양평군 수도사업소의 노력과 능력을 증명한 셈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관내 모든 시설 공사와 작업은 밤 11시에서 새벽 사이에 실시하고, 또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생활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4개 반 20여 명의 민원처리반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개인 급수 및 누수 복구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 민원, 기타 상수도 관련 일반 민원 및 생활 민원을 잘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만 수도운영담당주사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일 현장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처리 후 전화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운영으로 민원 발생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했다.

양평의 물맛이 으뜸이라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2007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물 맑은 양평수’의 인기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군청 본관 로비 및 별관에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해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물 맑은 양평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군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 13만4천 병, 2009년 9월까지 11만 병이 공급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0년부터는 약 15만 병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그 맛을 인정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양평군 수돗물이 사랑받는 데는 맑은 한강의 질 높은 원수(原水)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도사업소의 노력이 한몫을 했다.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양동정수장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을 받은 차세대 핵심 정수 기술인 ‘막여과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중 수질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는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취·정수장에 대한 개량과 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깨끗한 물 만들기에 앞장서서 더 이상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고 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매순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환한 웃음에서 더 맑고 깨끗한 양평의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

